



노동강도 강화와 '주6일 근무'에 맞서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특근 거부 투쟁을 지지하자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최근 8주째 특근 거부 투쟁을 해 왔다. '주간연속2교대 시행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4월 26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대의원 대표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특근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3월부터 강화된 노동강도가 주말 특근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게다가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주 특근을 해야 해서 주6일 노동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현대차 사측은 이 합의에 대해 '주말에도 평일처럼 2개조를 운영해서 기존보다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도 말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발하는 현대차 노동자들 — 특근 거부 지속을 결정하다

4월 29일에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여 합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작업을 중단하고 본관으로 이동한 노동자들은 달걀을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곳곳에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가자" 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고, 노동자들은 노조 사무실 앞에 가서 문용문 지도부에 항의했다. 1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항의에 동참했다. 비정규직·정규직 단결의 모범을 보여 준 것이다.

1공장 오후 근무조도 "오전 근무조도 나갔는데 우리도 나가자" 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29일에 울산 1공장 라인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런 불만과 분노에 힘입어서 현대차 울산 1·2·3·4·5 공장 대의원 사업부 대표들은 특근을 계속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부 대표들은 문용문 지부장의 사과와 특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고무적인 투쟁과 요구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특근 거부 투쟁은 전 공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강도 강화 반대

특근 거부 투쟁은 주간연속2교대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



4월 29일, 잘못된 합의에 반발해 라인을 세운 현대차 울산 1공장 노동자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주목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해 밤샘노동은 폐지했지만, 노동강도는 강화됐고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그래서 지난해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52.7퍼센트 찬성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그런데, 잘못된 합의로 강화된 평일 노동강도가 주말 특근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게 생겼다. 주5일제가 시행된 지 언젠데, 아직도 주말에 일해야 하고 노동강도까지 강화되는 것인가.

이를 통해 사측이 연을 비는 분명하다. 노동강도를 높이고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간연속2교대가 시행되는 데도, "현대차에 기술직(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2천5백 시간에 육박한다"는 지적도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천7백64시간)은 물론, 한국 평균 노동시간(2천2백32시간, 2010년 기준)보다도 훨씬 긴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대로면 노동자들이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주 주

말 특근을 해야 한다. 사실상 '주6일 근무'다. 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에게 주당 40시간 노동이 그림의 떡이어야 하는가.

그동안 '1급 발암 물질'인 심야노동을 하면서 한국 자동차산업을 뒷받침해 온 노동자들은 이런 부당하고 지긋지긋한 장시간 노동 강요를 거부할 자격이 있다. 지난해까지 현대차 사측이 공간에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무려 33조 원이다. 노동자들은 양보할 이유가 없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무엇보다 수많은 하청 부품업체 노동자들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중요하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과 내용으로 심야노동 폐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느냐에 따라 나머지 노동자들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 주말 특근을 폐지해야 온전한 주5일 근무를 안착시킬 수 있다. 물론 특근

이 폐지되더라도 임금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특근 거부 투쟁이 승리를 거두고, 이를 발판으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8주째 주말 특근 거부로 정몽구에게 1조 원의 생산 타격을 가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특근 거부 투쟁에서 보여 준 막강한 힘은 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현대차의 특근 거부 투쟁은 지속되어야 하고, 4월 29일 1공장 노동자들이 보여 준 것처럼 평일에도 작업을 거부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기아차 노동자들도 특근 거부 지속에 함께해야 한다. 같은 적에 맞서 싸우는 동지들에게 힘을 줘야 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연대와 지지도 건설되어야 한다. 이 투쟁의 성과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상반기 노동자 투쟁의 진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투쟁에 재시동을 거는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시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 계획을 세웠다.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비정규직 3지회는 4월 26일 대구모터 서울에 집결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해고된 현대차 촉탁 계약직 청년 노동자의 자살,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노동자의 분신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고통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차별에 맞선 투쟁이다. 박근혜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내하도급법(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악법) 도입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현대·기아차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할 수 있다.

현대차는 촉탁 계약직 해고를 중단하라

현대차 사측은 지난해 7월 비정규직 노동자 1천5백여 명을 촉탁 계약직(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불법파견 판정 작업장에서 하루라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핏수를 부린 것이다. 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 길어야 6개월이다. 심지어 2주나, 3주짜리 초단기 계약도 등장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아들인 촉탁 계약직 청년의 자살은 이런 정몽구의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한 촉탁 계약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 소식을 접하고 답답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5월에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시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아 끝났구나’ 하는 거죠.”

비판받아 마땅하게도 현대차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20일에 사측과 촉탁 계약직 사용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대의원대회에서 전투적 대의원들이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촉탁 계약직 사용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벌어지는 촉탁 계약직 해고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촉탁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기아차 광주 공장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

4월 16일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이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외치며 분신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올해 증산 계획이 있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기아차광주지회 지도부는 장기근속자 자녀와 비정규직 우선 채용을 요구했다.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분회는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기아차 사측과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신규채용시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런 요구와 합의는 부적절하다. 이것이 ‘기아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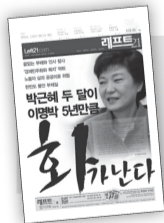
관행’이었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자기 공장 내부만 보는 협소한 시각이다.

자동차 정규직 일자리가 상대적 고임금이 되고,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합의는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 시도에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역경계도 “기아차 ‘일자리 대물림’ 청년 세대 저항 부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방씨 일가 ‘대물림’ 신문 주제에 말이다.

기아차지부와 기아차 사측의 가산점 부여 합의는 정규직화를 바라는 비정규

직 노동자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광주지회 지도부는 분신 직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선포했고, 사측은 압력에 밀려 특별교섭을 시작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이 성공을 거두려면, 원·하청 연대가 사활적이다. 그러려면 기아차지부 지도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 할 수 있는 장기근속자 가산점 부여 합의를 파기하고 적극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투쟁 지지 기사가 실린
레프트21 103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현대·기아차의 정규직·비정규직 투쟁은 서로 연결돼야 한다

현대·기아차에서 주말 특근을 거부하는 투쟁이 벌어지다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을 재개하고 있다. 노동강도·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서로 연결돼야 한다.

노동강도·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은 현대차 노동자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리고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새로운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확충해야 하

고,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사내하청과 촉탁 계약직)들을 채용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투쟁의 접점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열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현대·기아차 사측이다.

두 투쟁이 결합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둘러싼 투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